

일본 요괴 문화 속 여성 요괴의 생성과 이중성의 구조*

- 설녀(雪女), 우부메(産女), 야만바(山姥)를 중심으로 -

박희영**
hyp0723@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야만바(山姥)의 이중성 |
| 2. 설녀의 이중성-모성과 팜프파탈 | 5. 이중성의 의미-여성 요괴의 한계성과 현실 |
| 3. 모성과 원념의 산물, 우부메 | |

主 題 語: 일본 여성 요괴(Japanese Female Yokai), 일본 문화(Japanese Culture), 설녀(Yukionna), 우부메(Ubume), 야만바(Yabanba)

1. 들어가며

최근 현대 일본 문화 속에서 찾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일본문화코드 속에서 요괴 문화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증으로 괴기, 괴담문화 열풍과 그에 수반되는 요괴문화 열풍)은 그것에 대한 좋은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문학작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부터 그리고 각종 캐릭터 상품과 광고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화콘텐츠들이 ‘괴기, 괴담 및 요괴문화’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6A3A02033580)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요괴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면서 각지에서 요괴관련의 특별 행사 및 기획전이 기획되고 열리면서, 요괴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요괴 캐릭터가 대거 출현하는 등 문화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와 문화산업적 측면에서의 가치 및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게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일본의 요괴 문화 현상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대 일본대중문화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열풍 정도의 시선과 의미해석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요괴문화의 기층과 그 근저에 흐르는 전통적인 요괴 문화 생성과 원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구조 연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 즉 이러한 의미 차원에서 일본의 요괴문화의 생성원리와 그 구조를 살펴봄에 있어서 일본 요괴 중에서도 특히 여성 요괴들만큼 보다 흥미로운 자료도 없을 것이다.

일본 요괴 문화 속에서 여성 요괴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그들 면면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다양한 요괴 문화 생성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성 요괴의 위상은 비단 양적이고 수적인 면만을 고려한 비교 우위 차원에서 논리에서 벗어나서³⁾, 그들만이 지니고 있고 특수한 사회적·역사적 산물로서의 존재론적 의미와 구조 차원에서의 위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인들의 삶의 기층 속에서 왜 이러한 수많은 여성 요괴들이 어떠한 논리로 생성될 수 있었으며, 또한 일본인들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관계를 맺어오며 함께 살아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게 된다.

여성 요괴의 생성과 근원과 관련된 다양한 그들의 전승방식과 이미지의 양상, 그리고 그 속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은 일본인들의 삶의 궤적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인식되는 여성 요괴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여성 요괴의 생성 원리와 더불어 그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일본, 일본인 일본 사회의 기저를 통하여, 일본 여성 요괴문화의 구조와 그 속에서 파악되는 인간과 여성 요괴들의 존재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대표적인 일본 여성 요괴⁴⁾인 설녀(雪女), 우부메(産女), 야만바(山姥)를 중심으로 논의의 중심을 전개하고자 한다. 각각의 세 여성 요괴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와 특징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성원리를 가지고

2)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편(2013)『동아시아 교류와 문화변용』박문사, pp.83-85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이용미는 “신화나 몇몇 군담류(軍記物語)를 제외하면 일본의 설화나 모노가타리(物語)에서는 여성이 요괴화 되거나 혹은 요괴의 이미지를 갖는 동물이 여성화되는 소재가 남성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용미(2005)『說話 및 物語에 나타난 변형·변신의 양상-여성의 요괴화 담론을 중심으로-』『일본연구』제24호, p.205

4) 일본에서 전해지는 요괴 중에서 일본 여성 요괴들은 대표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존재들을 들 수 있다. 우부메(産女)를 비롯하여 입 찢어진 여자(くち裂け女), 먹지 않는 부인(食わず女房), 야만바(山姥), 설녀(雪女), 이소온나(磯女), 누레온나(濡女) 등 그 수는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요괴 문화 속의 주요한 여성 요괴들 중에서 특히 설녀, 우부메, 야만바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와 대상을 설녀, 우부메, 야만바로 한정하고자 한다.

존재해 왔던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이미지의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세 여성 요괴에 대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이미지의 원형과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세 여성 요괴의 이중적 구조의 함의를 기능해 보는 것을 본고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2. 설녀의 이중성-모성과 팜프파탈⁵⁾

일본에서 전해져 오는 여성 요괴 설녀 이야기는 다양한 이미지와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호설 지역을 중심으로 복잡한 양상으로 혼재되어 전승되어 왔다. 즉 눈 덮인 산속에서 설녀를 보았다는 목격담으로 비롯된 그들에 대한 모습, 이미지 그리고 습성 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의 양상들은 사람들에 의하여 구승되고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 막연하고 불가사의한 존재로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여성 요괴 설녀의 이미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설녀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가게 되는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여성 요괴 설녀 이미지의 원형

일본에서 여성 요괴 설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있었던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보통 무로마치(室町)시대 말기에 소기(宗祇)법사에 의하여 쓰인 『소기쇼코쿠모노가타리(宗祇諸国物語)』⁶⁾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설녀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중세시대부터 전승되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본 작품은 법사 소기가 눈이 많이 내리는 에치고(越後)지방에 가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설녀에 관한 흥미롭고 기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설녀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본장의 내용은 박희영(2013a)「동아시아 괴기 문화 속의 요괴 전승과 그 흐름-일본 요괴, 설녀(雪女)의 문화사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40집, pp.146-155를 바탕으로 본고의 주제와 취지에 맞게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6) 설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이루어진 최초의 문헌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日野巖(1982) 『動物妖怪譚』 有明書房, pp.186-189

소기가 어느 날 미명(未明)에 변소에 가려고 문을 열고 동쪽을 바라보니 10미터정도 떨어진 건너편 대나무 숲에 불가사의한 여자가 서 있었다. 키는 3미터 정도였고, 얼굴과 피부는 비칠 듯이 새 하얗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의 형태로 나이를 생각해 보니 20살이 되지 않아 보이는데, 새하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누굴까? 이름을 물어보려고 다가가자, 여자는 채소밭 쪽으로 걸어가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살펴보려는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만다. 아침이 되어 인근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것은 눈의 정령입니다. 설녀라 불리우지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해에 드물게 나타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진귀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⁷⁾

인용문은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그 존재의 유무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지만 기술되지 못한 채 전해져 내려온 설녀 이야기를, 본 작품을 통하여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개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일에 싸인 미지의 존재 설녀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그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설녀가 사람들에게 그 존재자체의 유무를 떠나서 설녀라는 여성 요괴가 인간과 공생하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증명되려는 측면에서, 또한 설녀가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불확실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의미에서 본 작품은 상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녀의 이미지 표현양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용문에서 설녀의 용모는 ‘얼굴과 피부는 비칠 듯이 새하얗고 하얀 옷을 입고 서 있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눈처럼 새하얀 여자로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눈의 정령’이라는 이미지로 대변되는 순백색의 상징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설녀는 눈처럼 순수한 순백의 이미지와 같이, 때 묻지 않은 순결함과 고귀함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전승되어져 온 다양한 일본의 설녀 이야기⁸⁾들을 살펴보면, 전승되는 과정에서 설녀의 부정적인 성격만이 강하게 인식되어 에도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서 설녀가 정착되어 가게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설녀는 주로 일본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⁹⁾에서 나타나고, 그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설녀 이야기는 변용되고 전승되어 나갔다는

7) 『소기쇼코쿠모노가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희영(2013a)의 논문, p.147의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8) 이후 다음과 같이 설녀 이야기는 변용되어 간다. 사람들을 위협하여 얼려 죽이는 공포스러운 존재, 아이를 안기게 하여 그 성공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우부메와 같은 존재, 아이를 납치해 가는 야만바와 같은 존재 등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 설녀는 주로 설산에 존재하는 공포스러운 요괴의 이미지로 강하게 구축되어 간다.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녀라 불리는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사항은 ‘겨울 밤 눈에 뒤덮인 공간, 즉 깊은 설산에서 불가사의한 여성이 나타나서 사람들과 부정적 관계를 맺어 간다’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구조는 구성되고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그 구조적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설녀 이야기는 대부분 슬픈 이야기이고, 아이가 없는 노부부, 산에서 혼자 사는 남자 등 이처럼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눈보라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닌가하며 상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기다리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행복감을 꿈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설녀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 속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여성 요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와 같은 이중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여성 요괴 설녀의 이미지의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2 설녀 이미지의 변화-모성과 팜프파탈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중세 『소기쇼코쿠모노가타리』 이래 다양한 설녀 이야기가 일본 각지에서 전해져 왔지만, 그 이야기는 어떤 극적 줄거리를 가진 완성된 이야기의 형태라기보다는 설녀의 어느 특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킨 단편적인 이야기로 산재해 왔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하나의 완성된 문학작품으로 정착시킨 것이 라프카디오 현의 『가이단(怪談)』¹⁰⁾의 「설녀」¹¹⁾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전해지는 일본 각지의 수많은 설녀 이야기들의 원형 중에서도 현재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인식되고, 설녀 이야기 계보를 자연스러운 극적 구성이 있는 형식으로 발전, 완성시킨 라프카디오 현의 『가이단』 속의 「설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9) 일본의 설국이라 불리는 아오모리(青森), 야마가타(山形),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에히메(愛媛),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 등과 같은 곳에서 주로 퍼져 나갔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과 이미지로 조금씩 다르게 변용된 내용과 결말로 설녀 이야기는 일본 전국에 보편화되어 간다.

10) 라프카디오 현의 저술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1904년에 출판된 『가이단』이 일본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자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유명하다. 현이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직접 수집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의 옛 이야기에서 소재를 따온 14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가이단』의 단편들은 불가사의하고 때로는 초자연적 신비스럽고 그리고 공포스러움으로 가득한, 일본 괴담 문학사상 상당한 위치를 점하는 기괴한 요괴 이야기이다. 박희영(2013a) 앞의 논문, p.151

11) 일본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설녀 상을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지금의 형태의 설녀 이야기로 최초로 완성시킨 것은 일본인이 아닌 서양인 현이었다. 성혜경(2009) 「라프카디오 현과 일본문화 「雪女(Yuki-Onna)」를 중심으로」 『일본연구』26집, pp.199-200

옛날 무사시(武藏)지방에 모사쿠(茂作)와 미노키치(巳之吉)라는 두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어느 겨울날 눈보라 심하게 쳐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추위를 피하려고 조그만 오두막을 찾아 잠시 쉬면서 잠을 청하게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미노키치는 불어오는 눈에 잠에서 깨게 된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사쿠 위에 올라 타있는 것은 하얀 옷을 입은 하얀 피부의 젊은 여자였는데 모사쿠의 얼굴에 하얀 입김을 내뿜자 모사쿠는 일어 죽고 말았다. 이번에는 하얀 젊은 여자가 공포에 떨고 있는 미노키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너는 젊고 잘 생겨서 죽이지는 않을 테니 오늘 있었던 일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라졌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미노키치는 오유키(お雪)라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어 열 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부인이 세월이 흘러도 늙지를 않는 것이었다. 눈보라 치는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운 부인에게 미노키치는 아내에게 무심코 말을 던지게 된다. “이렇게 당신을 보고 있자니 열 여덟 살 때 내가 겪었던 불가사의한 일이 생각이 나오. 그날 당신과 똑 닮은 여인을 만났었소” 미노키치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오유키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다. “당신이 그때 만났던 여자가 바로 나다. 내가 당신에게 절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고” 말하였거늘 하며 성을 내었지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 둘테니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거라”하며 그녀는 녹아서 하얀 안개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이후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¹²⁾

현의 「설녀」는 도입 부분의 이야기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눈보라의 정령과 공포의 화신으로 부정적인 악한 여성 요괴로서 제시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여러 형태의 설녀 이야기 전승들과 그다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는 듯,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이야기의 흐름은 변하고 설녀의 이미지의 변용이 시작된다. 본 작품의 한 대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젊고 잘생긴 청년 미노키치에게는 팜프파탈적 성격과 모성을 동시에 간직한 이중적 여성 요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처음에 미노키치를 살려주었다가 인간 여성 오유키로 변신하여 미노키치를 다시 찾아와 그와 부부의 연을 맺는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을 주고 있다. 즉 공포의 대상인 여성 요괴에서 팜프파탈적 성격을 가진 한 인간 여성으로의 변신은 미노키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통한 인간화에 대한 욕망의 구현이면서, 한편으로는 순수한 청년 미노키치를 홀리기 위한 여성 요괴 본연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여성인 오유키로 변신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미노키치와의 혼인의 과정에서 생긴 아이들을 통하여 생기게 된 인간적인 모성애는 여성 요괴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절대로 이전의 설산에서의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되었던, 즉 범해서는 안 될 금기를 깨고 마는 미노키치

12) 小泉八雲(2009)『怪談・奇談』講談社, pp.80-85를 바탕으로 줄거리 요약.

는 아이를 낳지 않은 존재로서의 설녀였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보듯이 열 명의 아이를 낳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지대함은 여성 요괴 설녀로 하여금 인간적 모성을 잉태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미노키치를 용서하고 사라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다. 이를 통하여 설녀의 마음 약한 이중적 존재로서의 모습도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었다.

이처럼 설녀는 한없이 인간을 위협하는 섬뜩한 본성을 나타내는 요괴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녹아 없어지는 눈의 이미지와 아이를 둘러싼 모성을 통하여 인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려고 하지만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애절함과 안타까움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다. 즉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이류혼인담의 양식의 답습이 아닌, 사람과 이류의 존재인 요괴와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류혼인담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서 요괴로서의 설녀, 그리고 모성과 팜프파탈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질의 설녀로서, 이전의 설녀 이야기와는 전혀 색다른 모습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라프카디오 현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이처럼 여성 요괴 설녀는 한계성¹⁴⁾을 가진 존재이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설녀의 이중적 성격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여성 요괴 설녀로 하여금 그러한 한계성을 더욱더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결국에는 이러한 여성 요괴의 한계성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5장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3. 모성과 원념의 산물, 우부메¹⁵⁾

우부메(産女)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임신부가 하반신을 빨강계 피로 물들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로 강가 또는 다리 기슭이나 가두 등에서 출현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이를 안아달라고 청하는 일본 여성 요괴의 하나이다.¹⁶⁾

13) 박희영(2013a) 앞의 논문, pp.151-153

14) 결국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인간으로 변신하여 인간과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들만의 한계성의 극복 방식을 찾아내지만, 애써 극복된 설녀의 한계성은 해서는 안 될 금기를 깨뜨리고 마는 인간 미노키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깨지고 만다.

15) 본장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 논문의 내용을 본고의 주제에 맞게 수정, 발전시켰다. 우부메(産女)와 관련된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논점은 박희영(2013b)「일본 요괴문화 원형 속의 여성 요괴 이미지와 상상의 계보-여성 요괴 우부메(産女)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 60집에 자제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일본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여성 요괴 우부메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여성 요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미지와 형태로 산재되어 전개되어 왔다.¹⁷⁾ 즉 우부메는 일본인들의 생활경험과 상상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것들이 구승문에 등의 정보의 집적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러한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 출산, 아이 라는 공통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여성 요괴로 본장에서 설명하는 우부메, 앞장에서 전술한 설녀(雪女)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살펴볼 야만바(山姥)¹⁹⁾ 등 대략적으로 그 범위가 좁혀짐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 세 요괴 중에서 우부메는 출산, 아이와의 관계성 면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부메의 전통적으로 아이를 낳다 죽은 산모에 대한 인식과 당시 시대 상 속에서 사람들의 여성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계가레 문제 등 우부메만이 지니고 있는 모성과 원념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간략히 우부메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강가나 다리 등 물가에서 주로 나타나고²⁰⁾, 2. 아이를 항상 안고서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부메는 강가나 물가에서 나타날 때는 하반신은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서 등장하고 있다. 출산으로 인하여 죽은 임신부였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지지만, 이러한 우부메 이미지는 다른 여성 요괴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여성 요괴 본연의 강력한 인상을 전달하는 시각적 효과를 남겨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6) 구사노 타쿠미(저) · 송현아(역)(2001)『환상동물사전』들녘, p.245

17)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일본의 각 지역의 우부메와 관련된 이야기는 정리된다. 1. 아이를 안아달라는 우부메의 요청을 받게 되어, 버티어 내어 우부메로부터 피력을 얻게 되거나, 보물, 진귀한 칼 등을 얻게 되는 이야기(특히 대부분의 이야기 유형을 차지함), 2. 안고 있던 아이가 석탑과 돌이였었다는 이야기, 3. 지방에 따라서는 설녀, 야만바 등의 일본 여성 요괴와 동일시되어 기술되어 있는 이야기 등, 이러한 유형이 일반적인 우부메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왔다. 이러한 유형 이외에도 각지의 민속자료를 보면, 같은 요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우부메의 형태가 전해진다. 규슈지방에서는 해상의 괴화(怪火)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마라키(茨城)에서는 우부메를 우바메도리(ウバメトリ)라는 중국의 고획조(姑獲鳥)에서 유래하는 새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박희영(2013b) 앞의 논문 참조.

18) 木場貴俊(2010)『歴史的産物としての「妖怪」-ウブメを例にして-』『妖怪文化の伝統と創造』せりか書房, p.214 참조

19) 야만바(山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한다.

20) 오랫동안 강가나 물가는 출산과 관계된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출산이 행해지던 장소, 산옥(産屋)은 강가에 주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강가에 설치된 이유는 죽음이나 피를 계가레(穢れ)로 보는 관념에 기반을 두어, 강의 물결로 계가레를 깨끗이 씻어 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에도시대의 우부메는 강가에 그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임신부의 영(靈)인 우부메가 물가에 등장하는 상황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부메 혼자만이 아니라 아이를 안고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아이를 안기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안타까운 임신부의 원념과 더불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함께 죽은 자신의 아이 만큼은 엄마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되돌려 부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상이라 여겨진다. 즉 비현실적인 이세계(異世界)로 가야하는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고 다시 현실세계 속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엄청난 힘인 모성을 발현²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앞에서 살펴본 라프카디오 현의 『가이단』에 등장하는 설녀의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앞서 살펴본 설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다양한 문예 작품에서도 수많은 우부메의 전승양식²²⁾을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우부메가 등장하는 문예전승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다 죽은 임신부가 변한 요괴, 우부메가 하반신이 피로 물들은 채로 등장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안아달라고 부탁하여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면 괴력이나 황금, 보물 등과 같은 재화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잔인하게 죽인다’는 형태로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부메는 우선 아이를 낳다가 죽은 임신부, 즉 원래 인간이었던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살펴본 설녀가 처음부터 요괴였다는 전제와는 다른 존재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포스러운 존재이지만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고자 했던 여성 요괴 설녀와 인간이었지만 출산 중의 사망으로 인하여, 요괴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우부메는 애초부터 출발 선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생겨나는 우부메의 원념은 현실세계의 한 여성으로서의 한계성의 극복방식으로 여성 요괴 우부메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이야기의 구조는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시대적 한계성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의지의 표현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태동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5장에서 후술하도록 하자.

21) 우부메로부터 괴력을 받게 되는 일련의 패턴과 우부메의 힘의 발현에 대하여 민속학자 미야타 노보루(宮田登)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미야타는 “우부메의 정체인 죽은 산모가 아이를 간절히 현실 세계로 되돌려 보내고 싶은 염원이 있었고, 때문에 이 현실세계로 돌아오려고 할 때 발생하는 괴이한 괴력, 즉 출산에 동반되는 힘의 체현을 아이를 받아든 남자에게 대가로서 지불함으로써 인하여 다시 아이가 현실 세계에서 재생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宮田登(2002) 『妖怪の民俗学・日本の見えない空間』 筑摩書房, pp.30-32

22) 앞의 논문 박희영(2013b) 「일본 요괴문화 원형 속의 여성 요괴 이미지와 상상의 계보-여성 요괴 우부메(産女)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0집에 그 내용이 자세하다.

4. 야만바(山姥)의 이중성

야만바는 민속사회에서 전승되어져 온 요괴이다. 민속사회의 야만바는 일본에서 깊은 산중에 사는 노파모습을 한 요괴로, 아마우바(山姥), 오니바바(鬼婆), 기쵸(鬼女), 야마히메(山姫), 산바(山母), 가와조로(川女郎)라고 불리고, 그 남편은 보통 아마오토코(山男), 아마지지(山翁) 등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지방에 따라서 다소 이야기가 다르지만, 야만바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키가 크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²³⁾

이처럼 야만바는 기본적인 성격은 다르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미지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공포스러운 요괴의 근원적인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행복과 부를 얻기 위한 원조자²⁴⁾로서 일하는 긍정적인 존재이거나, 때로는 인간세계로 내려와 출산을 하는 모습²⁵⁾에서 인간 여성의 모성을 느끼게 하는 온화한 속성을 함께 지닌 이중적이고 양의적인 존재²⁶⁾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는 야만바 전승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야만바를 산에서 만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특히 야만바와 조우 한 후에 원인불명의 병에 걸리면, 그것은 ‘야만바의 저주’라든가, ‘야만바 빙의’로 간주되어, 재액을 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야만바의 방문을 받은 집은 부자가 된다고 전해져서, 실제 야만바의 방문을 받고, 대접하여 부자가 된 집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옛날이야기에서도 계모에게 이지메를 당한 여자 아이가 야만바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야만바의 이중성은 야만바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행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호감이 가는 행동을 하는 인간에게는 부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존재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부적합한 자에게는 재액과 화를 가져다주는 공포스러운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이다.²⁷⁾

23) 小松和彦(2007)『妖怪文化入門』せりか書房, pp.245-247

24) 이용미에 따르면 “야만바의 원조자 이미지는 풍요,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대지모신(大地母神)’이, 그리고 파괴자의 이미지는 파괴, 공포를 상징하는 ‘귀자모신’이라는 여성원형이 문예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미(2011)「山姥의 원형과 변용-謡曲『山姥』 및 浄瑠璃『嬭山姥』를 중심으로-」『일본언어문화』 제20집, pp.394-395

25) 출산을 위해서 여성이 산에 들어가는 풍속이나 촌락의 마쓰리 때에 선택된 여성이 산에 들어가는 것도 산악 신앙의 습속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6) 小松和彦(2008)『憑霊信仰論』講談社, p.307 이외에도 이중성을 지닌 야만바의 원형은 일본 원주민의 후예나 상카(サンカ)라는 산속을 유랑하는 백성이라는 설과 산신을 받드는 무녀가 요괴로 변한 것이라는 설 등이 있다.

이처럼 야만바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귀녀적 성격이 있으면서도 온화한 어머니 같은 성격도 갖고 있어서, 수많은 아이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야만바 전승으로서 유명한 것으로는 아시하라산(足柄山)의 긴타로(金太郎)의 어머니²⁸⁾로서의 존재이다. 긴타로의 이름은 사카타노 키타키(坂田公時)²⁹⁾인데, 후에 미나모토노 요리미쓰(源頼光)의 사천왕³⁰⁾의 한 사람이 되는 인물이다. 이 이야기는 야만바의 모성이 가득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유명한 일화로 그동안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던 야만바를 긍정적인 인식의 여성 요괴로 전환시켜주는 이미지 변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천왕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권제27의 「요리미쓰의 가신 스에타케가 우부메를 만난 이야기(頼光郎等平季武産女值語)」 제 431)에 등장하는 우라베노 스에타케(卜部季武)의 모습에서 여성 요괴 우부메와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요리미쓰의 가신의 그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라베노 스에타케(卜部季武)가 심야에 말을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을 때, 건너던 강의 중간지점에서 우부메가 나타나 아이를 안고 있으라고 건네주고, 스에타케는 아이를 받아 들고 강기슭으로 향한다. 그러자 우부메는 아이를 돌려달라며 쫓아오지만, 스에타케는 이에 응하지 않고 물으로 향한다. 숙소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나뭇잎으로 변해 있었다고 한다.³²⁾

인용문은 스에타케가 우부메와 만나게 되면서 경험한 무용담을 전하는 신기한 이야기로서, 여성 요괴 우부메를 만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괴기적 분위기를 흥미진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오토기조시(お伽草子)의 『슈텐도지(酒呑童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카타노 키타키도 앞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야만바의 아들로서 요괴 슈텐도지³³⁾를 무찌르는 사천왕으

27) 小松和彦(2007) 앞의 책, p.247

28) 긴타로의 어머니로서의 야만바는 외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스러운 측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식에 대해서는 한없이 상냥한 엄마로서 그려지고 있다.

29)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나모토노 요리미쓰가 가즈사노쿠니(上総国)에서 상경하여, 아시하라산에 접어들게 되어 불가사의 한 곳에서 만나게 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아이가 사카타노 키타키이다. 이 아이는 산속에 살던 야만바가 꿈속에 나타난 붉은 용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라 전해지는데, 요리미쓰는 그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사카타노 키타키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신(家臣)으로 삼았다.

30) 사천왕으로 와타나베노 쓰나(渡辺綱), 사카타노 키타키(坂田金時), 우스이 사다미쓰(碓井貞光), 우라베노 스에타케(卜部季武)가 있다.

31) 우부메의 모습과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이루어진 최초의 문헌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32) 馬淵和夫(1987)『今昔物語集 4』日本古典文學全集24, pp.149-153

33) 슈텐도지는 일본 교토와 단바노쿠니(丹波國) 국경의 오에야마(大江山)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일본 3대

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각각 사천왕 무사들의 여성 요괴와의 접점과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어쨌든 근세이후 야만바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림이나 이야기에도 빈번히 등장하게 된다. 이 시대 야만바 이미지의 확장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지카마쓰 몬자에몬의 『고모치야만바(子持ち山姥)』를 들 수 있는데, 근세에서 자식을 기르는 엄마의 이상형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³⁴⁾

5. 이중성의 의미-여성 요괴의 한계성과 현실

일본 요괴 문화에서 요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인식 속에서 자리매김하여 왔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떠받들며 모셔야 할 경외와 숭배의 대상으로,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협이 되는 이계(異界)의 존재로서 퇴치되어야 할 것으로, 근세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두려운 존재가 아닌 웃음과 해학을 던져주는 익살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에 이르러서는 근대화된 서양 과학문물과 사상의 유입으로 인하여 철저히 배제되고 인식의 범주 속에서 사라져야 할 의미 없는 존재로서 생각되어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세 여성 요괴, 설녀, 우부메 야만바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시대적, 사회적 변용 속에서 인간과의 교류와 접촉, 그리고 인식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설녀의 경우는 공포스러운 요괴에서 인간적 이미지를 겸비한 모성과 팜프파탈의 존재로, 우부메의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원념과 더불어 자식에 대한 모성을 끝없는 모성을 지닌 존재로, 야만바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괴롭히는 두려운 마성과 모성을 동시에 겸비한 존재로 그 이미지는 변화하거나 이중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 여성 요괴는 첫 번째로 전통적인 요괴 이미지에서 비롯된 공포스러운 원념의 존재, 두 번째로 아이들에 대한 집착과 애정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아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점에서 이중적 구조를 지닌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구조가 근원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 심층적인 배경과 의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앞의 세 여성 요괴를 고찰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을 통하여 여성 요괴의 생성원리를 비롯하여 이중성

요괴로 알려져 있다. 그가 본거지로 삼았던 오에야마에는 용궁과 같은 저택이 서있고 수많은 귀신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

34) 小松和彦(2007) 앞의 책, p.249

의 구조에 대한 논점의 재확인을 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집안의 존속이나 번영이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지던 고대 시대, 여성이면서 출산이라는 중대사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³⁵⁾, 또는 월경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죄업으로 간주³⁶⁾되었던 것이다. 당시 억눌린 현실세계 속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불합리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제한되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 전해 듣거나 읽게 된 괴기, 괴담 속의 비현실적인 존재와 요괴들 특히 여성 요괴들을 통하여 남성주의 가부장적 시대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출과 자연스러운 일탈을 꿈꿔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의 한계성은 비현실적인 이공간의 존재인 여성 요괴 들을 통한 투영을 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세계 속의 여성에 대한 여인금제(女人禁制)를 비롯한 다양한 불합리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의식은 비현실적인 이공간의 존재인 앞에서 살펴본 세 여성 요괴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것을 인식시켜주는 역사적 산물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세 여성 요괴, 설녀, 우부메, 야만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 여성 요괴 이미지는 일본의 각 지역의 특색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특수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그 이미지는 가감되며 전승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세 여성 요괴는 그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 속에서 파생되는 이미지와 그 인식의 범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한계성의 극복양상 등에 대한 의미 해석과 분석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처 다 검증하지 못한 세 여성 요괴의 다양한 논점들, 그리고 세 여성 요괴 이외의 요괴들에 대한 구조 파악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參考文獻】

구사노 타쿠미(저), 송현아(역)(2001) 『환상동물사전』 들녘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편(2013) 『동아시아 교류와 문화변용』 박문사
 박희영(2013a) 「동아시아 괴기 문화 속의 요괴 전승과 그 흐름-일본 요괴, 설녀(雪女)의 문화사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40집

35) 예전부터 임신하지 못한 채 죽은 여성은 「우마즈메지옥(石女地獄)」으로, 임신은 했지만 출산 전에 죽은 여성은 「피지옥(血の池地獄)」으로 떨어진다고 여겨져 왔다. 임신부의 죽음을 엄한 죄로 간주하여, 피지옥에 떨어진다는 의식은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유포된 『혈분경(血盆經)』의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 勝田 至(1992) 「村落の墓制と家族」 『中世を考える 家族と女性』 吉川弘文館, pp.208-209
 36) 오래전부터 임신을 한다는 것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잉태하는 상태로 생각되어 임신은 곧 부정한 게가레(穢れ)라는 인식을 낳게 되었다. 그러한 게가레를 씻어내는 것이 정화 작용으로서의 출산이었던 것이다. 임신부는 아이와 함께 게가레도 낳아 떨쳐버리는 것이었다.

- _____(2013b)「일본 요괴문화 원형 속의 여성 요괴 이미지와 상상의 계보-여성 요괴 우부메(産女)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0집
- 성혜경(2009)「라프카디오 현과 일본문화-「雪女(Yuki-Onna)」를 중심으로-」『일본연구』 26집
- 이용미(2005)「說話 및 物語에 나타난 변형·변신의 양상-여성의 요괴화 담론을 중심으로-」『일본연구』 제24호
- _____(2011)「山姥의 원형과 변용-謡曲『山姥』 및 浄瑠璃『嬭山姥』를 중심으로-」『일본언어문화』 제20집
- 勝田至(1992)「村落の墓制と家族」『中世を考える家族と女性』吉川弘文館
- 木場貴俊(2010)「歴史的産物としての「妖怪」-ウブメを例にして-」『妖怪文化の伝統と創造』せりか書房
- 小松和彦(2007)『妖怪文化入門』せりか書房
- _____(2008)『憑靈信仰論』講談社
- 小泉八雲(2009)『怪談・奇談』講談社
- 日野巖(1982)『動物妖怪譚』有明書房
- 馬淵和夫ほか(1987)『今昔物語集4』日本古典文學全集24
- 宮田登(2002)『妖怪の民俗学・日本の見えない空間』筑摩書房

논문투고일 : 2013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10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1일

〈要旨〉

일본 요괴 문화 속 여성 요괴의 생성과 이중성의 구조

- 설녀(雪女), 우부메(産女), 야만바(山姥)를 중심으로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세 여성 요괴, 설녀, 우부메 야만바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시대적, 사회적 변용 속에서 인간과의 교류와 접촉, 그리고 인식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설녀의 경우는 공포스러운 요괴에서 인간적 이미지를 겸비한 모성과 팜므파탈의 존재로, 우부메의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원념과 더불어 자식에 대한 모성을 끝없는 모성을 지닌 존재로, 야만바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괴롭히는 두려운 마성과 모성을 동시에 겸비한 존재로 그 이미지는 변화하거나 이중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 여성 요괴는 첫 번째로 전통적인 요괴 이미지에서 비롯된 공포스러운 원념의 존재, 두 번째로 아이들에 대한 집착과 애정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아이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점에서 이중적 구조를 지닌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구조가 근원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 심층적인 배경과 의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앞의 세 여성 요괴를 고찰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The Creation and Duality of structure of Female Yokai in the Japanese Yokai Culture

- With a Special Attention to Female Yokai Yukionna, Ubume, Yabanba -

So far, Japan's three female ghost, *Yukionna*, *Ubume*, *Yabanba* Thus, just as the image of the times, the flow of human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contact, and show th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perception of been able to find out. *Yukionna* in the case of a human image which had a horrible monsters resistant to the presence of the femme fatale, *Ubume* not borne a child, the death for the children, with resentment about motherhood with an endless existence, man must likewise bar a dreadful plague that had abrasive and resistant to the presence at the same time changing the image or the image itself in the dual structure will've made. As a result, the first three women to the traditional ghost image ghost comes from the presence of resentment horrible, and the second for children due to the constant obsession and love that you want to keep the child with the presence of resistance was a point in common with the structure in the dual has is that. However, this double structure is fundamentally caused by the in-depth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tudy, while the first three female ghost was thinking.